

인쇄업 정보화투자 제조업중 으뜸

활용도는 최저수준

기업에 있어 정보화투자는 생존·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생산방식의 디지털화와 함께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력, 기술력, 관리력, 정보력 등에서 모두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정보화투자는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조직구조가 단순하여 의사결정력과 경영자의 의지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고 시장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정보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정보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곧 고사 위기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세계는 정보화의 흐름속에서 개인, 국가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 전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국제화시대라는 조류 속에서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최근 인쇄업의 기업환경도 나날이 정보화 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본 생산방식에서부터 경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보화를 위한 기본적 토양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변화도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쇄업계 현실은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첨단 장비에 대한 도입만 급급한 채 경영방식이나 관리 등 보이지 않는 정보투자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설투자의 증가로 정보투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투자에 따른 효율성이나 활용도에서는 정보투자의 증가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산업의 정보화 추이와 성과'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쇄업의 정보투자 증가율은 지난 85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21%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부분품(2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산업에서 두 번째로 정보화투자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정보중간투입이나 정보집약도는 각각 3.5%, 3.4%로 전체 산업평균인 10.4%, 7.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에서의 정보관련 재화 및 기술의 활용증가는 생산과정에서 정보관련 재화의 투입비중이 상승하는 추이와 정보화가 어느정도 진척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중간투입 비율과 정보집약도는 기업 정보화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또한 인쇄업의 총 자본비율대비 정보자본비율은 6.7%로 비정보부문평균(2.5%)보다는 월등히 높았으나 정보부문평균(26.2%)에는 턱없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보산업으로서의 전환은 아직 미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쇄업은 산업구조의 정보화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보기술 활용을 반영하는 생산방식의 정보화 측면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시설투자를 중심으로한 정보투자를 통해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경영관리나 생산방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비정보부문에 해당했던 인쇄업의 정보투자 증가율이 정보산업인 반도체에 이어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점차 정보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미력하나마 인쇄업의 정보화에 따른 효과는 일부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쇄업의 정보투자에 따른 노동생산성 기여율은 80년대 0.24%에 불과했으나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2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전히 정보산업 평균(4.74%)에 비해서는 낮으나 비정보산업(0.59%)이나 전체 산업평균(0.53%)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아날로그식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방증이다.

결국 이 보고서의 분석을 통한 결론은 인쇄업계가 지속적인 정보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관련 시설투자를 늘리는 데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산업의 정보화가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보화 관련 설비투자와 함께 정보기술에 걸맞는 생산조직 및 방식, 경영행태 등에 대한 정보투자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화의 잠재적 가치를 충실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투자와 아울러 정보화에 대응한 보완적 투자라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정보화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보완적 투자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보투자의 방향은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통해 관련 시설투자와 보완적 투자라는 혁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김광륜차장〉